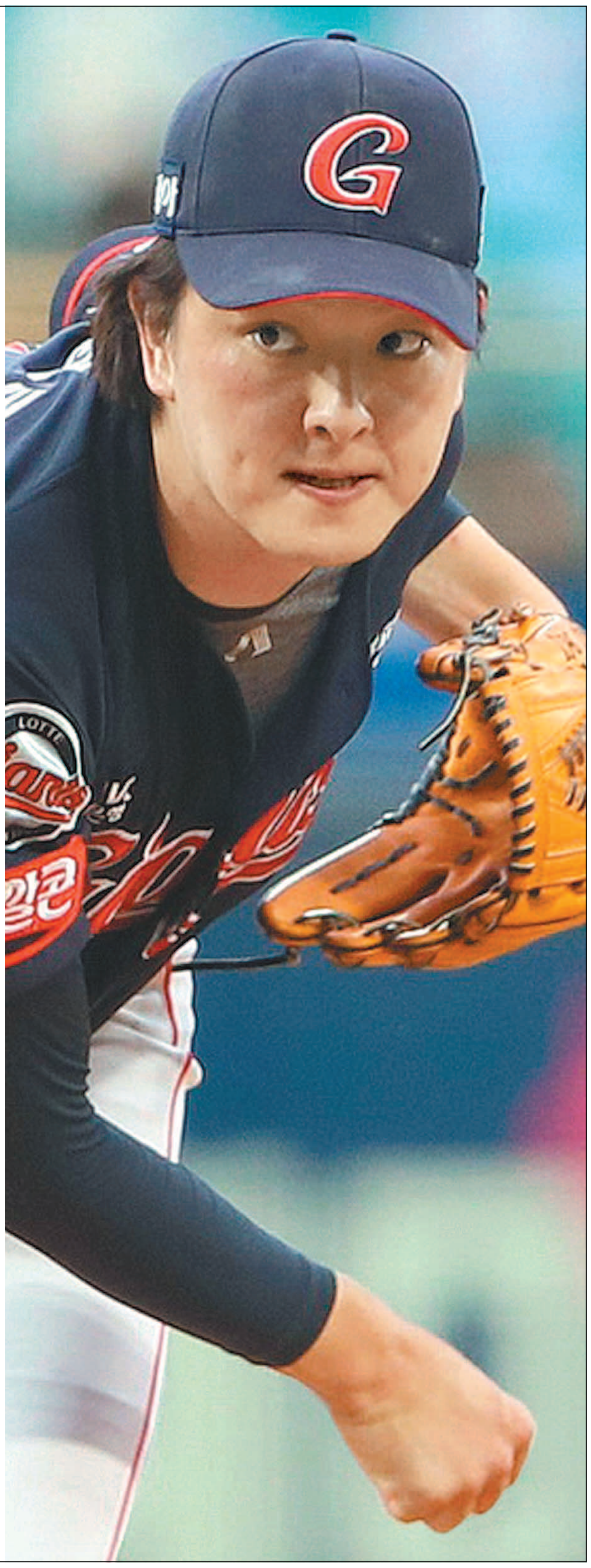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마무리투수 수난시대 나홀로 빛나는 김원중

〈롯데〉



▶ 롯데 김원중은 17일까지 후반기 팀의 5승(2패) 모두를 든든히 지켰다. 17일 사직 키움전에선 1점차 터프 세이브까지 챙겼다. 다른 팀 마무리투수들이 4주간에 걸친 올림픽 휴식기의 여파 때문인지 후반기 들어 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원중만은 예외적으로 세이브 성공률 100%를 기록 중이다. 사진제공 | 롯데 자이언츠

후반기 리그 세이브 성공률 22%
김원중만 5경기서 100% 세이브
구속 150km UP…포크볼도 위력
올림픽 휴식기 재충전 효과만점

KBO리그 후반기는 그야말로 '마무리투수 수난시대'다.

KBO리그 공식기록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17일을 기준으로 후반기 리그 전체의 세이브 성공률은 고작 22.03%다. 세이브 상황 총 59차례 중 성공은 겨우 13회에 그쳤다. 반면 블론세이브(BS)는 무려 10번이나 나왔다. 정해영(KIA 타이거즈)과 원종현(NC 다이노스)은 각기 2차례, 고우석(LG 트윈스)과 정우람(한화 이글스)은 1차례씩 BS를 떠안았다.

그러나 롯데 자이언츠 마무리투수 김원중(28)은 이런 흐름과 달리 승승장구하고 있다. 후반기 5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따냈고, 이 기간 피안타율(0.118)과 이닝당 출루허용(WHIP·0.60)도 수준급이다. 31경기에서 3승3패12세이브, 평균자책점(ERA) 4.64에 머물렀던 전반기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1-0 승리를 지켜낸 17일 사직 키움 히어로즈전에선 직구의 평균구속이 150km까지 나왔을 정도로 강력한 구위를 과시했다. 전반기 막판 평균구속이 144km까지 떨어졌던 직구의 구위가 되살아나니 주무기인 포크볼의 위력도 배가돼 2스트라이크 이후 타자와 승부도 한결 수월해졌다.

김원중은 2020도쿄올림픽으로 인한 4주간의 휴식기를 활용해 완벽하게 재충전한 모범사례다. 다른 마무리투수들의 고전과 맞물려 한층 더 빛나고 있다. 봉중근 KBSN스포츠 해설위원은 "김원중의 구위가 정말 좋다"며 "전반기에 부족했던 점을 공부하고 바꾼 점도 눈에 띈다. 타자와 상대할 때 항상 볼카운트 싸움에서 밀렸지만, 이제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많이 잡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직구에 자신감이 있고, 공격적인 투구가 되니 전반기에 없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마무리투수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4경기에서 ERA 6.23으로 고개를 숙였던 고우석은 17일 수원 KT 위즈전 9회말 1안타 2볼넷 2실점으로 5-3의 리드를 날렸다. 후반기 2경기에서 ERA도 9.00이다. 정우람 역시 후반기 3경기에서 ERA 13.50에 2.2이닝 동안 볼넷만 4개다. 원종현은 ERA는 2.45로 나쁘지 않지만, 피안타율(0.357)과 WHIP(1.91)에서 드러나듯 안정감과는 거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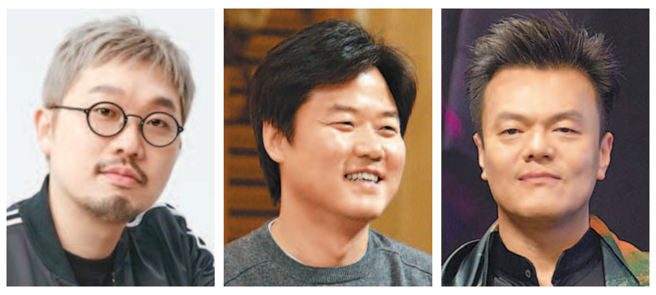
이 같은 마무리투수들의 부진 원인은 무엇일까. 봉 위원은 "루틴이 깨졌다"며 "올 시즌은 올림픽 휴식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고우석 등은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기에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아직까지는 떨쳐내지 못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컨디션을 유지하기에 한 달은 길었다. 예전처럼 운동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 보니 근육과 몸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반기 7경기에서 5승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롯데다. 김원중이 100%의 세이브 성공률로 뒷문을 든든히 지킨 덕이다. '마무리투수 수난시대'를 방불케 하는 후반기 초입에서 그가 유독 돋보이는 이유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3·4면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상반기 상장사 임직원 보수 랭킹 살펴보니



그룹 방탄소년단 수석 프로듀서 피독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4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J ENM의 나영석 PD는 10억8100만원,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왼쪽부터)는 6억2427만원을 받았다. 뉴시스·스포츠동아 DB 사진제공 | SBS

BTS 프로듀서 피독, 400억 '보수킹'

급여 3800만원…스톡옵션 399억 전체 1위
2위 정몽구 명예회장 302억 앞질러 화제
나영석 PD, 상반기 보수만 10억8100만원
CJ그룹 회장·부회장보다 많은 보수 받아

그룹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인 피독(38·강효원)이 올해 상반기 무려 400억원의 보수를 받아 세간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하이브의 수석프로듀서이기도 한 그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302억3400만원을 제치며 올해 1~6월 상장사 임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18일 하이브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피독의 정식 급여는 3800만원이다. 하지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399억2800만원과 상여금 1억1100만원 등 총 400억7700만원을 받아 반기보고서 제출 기업 임직원 중 상반기 보수 1위를 차지했다. 그는 2016년 11월 행사가격 1062원에 받은 스톡옵션 12만8000주를 주가 31만3000원에 행사해 주당 31만1938원의 이익을 거뒀다. 총 행사 이익은 400억원에 육박했다.

피독은 방시혁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2013년 데뷔곡 '노 모어 드림'(No More Dream)을 비롯해 '봄날', '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DNA', '아이돌' 등 다수의 히트곡을 작사·작곡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면서 최근 3년 연속 국내 저작권료 수입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피독을 포함해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초창기 멤버인 김신규 매니지먼트총괄(CAMO)과 윤석준 글로벌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 3명이 상반기 보수 상위 5위에 올랐다. 김신규 총괄은 277억600만원, 윤석준 CEO는 231억8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신서유기' 시리즈 등을 연출한 CJ ENM 소속 나영석 PD도 눈길을 끈다. 총 10억8100만원으로, 급여 1억5000만원에 상여금 9억3100만원을 포함한 액수이다. 이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보다 많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 부회장은 각각 9억원과 10억원이었다. 나 PD는 지난해에도 12억2900만원을 받아 CJ그룹 임직원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KBS 출신으로 CJ ENM의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를 연출한 신원호 PD는 1억5000만원의 급여와 6억2700만원의 상여금 등 총 7억7700만원을 받았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의 지누션, 아이오케이의 김하늘 등 상장사의 사내임원인 일부 연예인의 보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주요 엔터사 임직원 보수

※ 출처:2021년 각사 반기보고서

엔터사	이름	보수	특이사항
하이브	피독(강효원·수석프로듀서)	400억원	스톡옵션 399억원 행사 (12만8000주, 주당 31만3000원)
CJ ENM	나영석 (PD)	10억8100만원	급여 1억5000만원 +상여금 9억3100만원
	신원호 (PD)	7억7700만원	급여 1억5000만원+상여금 6억2700만원
JYP	박진영 (사내이사)	6억2427만원	주식 540만2311주 보유 (지분가치 2198억7000여만원 ·2021년 7월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SM	보아 (권보아·비등기이사)	미등재	
YG	션 (RO SEAN KIM·사내이사)	미공개(임원 평균 1억5400만원)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